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④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위기 속에서 다시 모인 손길들. 발품을 팔아 선정한 원단과 디자인 샘플을 펼쳐 놓고 앞으로의 디자인과 제작 방향을 논의하는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 팀원들.

연이어 벌어진 두 번의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뽀디봉 마을은 그동안 출입이 완전히 금지된 레드존(Red Zone)으로 선포됐다가 이제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옐로우존(YelloW Zone)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북쪽 일부는 여전히 레드존으로 남아 있는 등 자력으로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수레꾼이 세운 공예학교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장인 쏘리야 선생님과 봉제팀원 네 명에게 프놈펜으로 오라고 했고, 저 역시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스물을 갓 넘긴 봉제 팀원들은 모두 수레꾼이 세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며, 같은 동창 남학생들과 결혼해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앳된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두 달 가까이 피난 캠프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웃으며 전하는 고생담을 들으며, 그 웃음 뒤에 숨은 고단함을 생각하다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과거 마케팅 기획자로 일하던 시절 자주 되뇌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위기는 기회다"였습니다. 마케팅 전략가는 시장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멈추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을 읽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전략의 본질이었습니다.

한자어 '위기(危機)'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危)'는 절벽 끝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떨어지고 맙니다. '기(機)'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전환점입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끝이 아니라,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순간입니다.

밤 버스를 타고 프놈펜으로 달려온 공예학교 팀원들과 쏘리야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쳐 주신 따프롬 실크 워크숍의 욱 선생님 부부, 그리고 새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 저의 아내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겪은 어려움을 뒤로 한 채, 그동안 제작한 봉제품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고 냉정한 품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열띤 토의를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발품을 팔며 천과 부속품을 사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위빤 끄찌어 옥까 무이 띠은(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위 문장을 공예학교 교실에 크게 붙여 두라고 쏘리야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의 새로운 슬로건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의 웃음이 교실을 채우는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② 사찰에 깃든 정성과 명절의 온기

음식 준비, 마음 가다듬는 수행이 되다

산의 능선이 갑자기 끊어지지 않는 곳, 물이 직선으로 밀려들지 않는 자리. 지리산 끝자락 해발 500m 고지에 자리한 고즈넉한 도량에서 나는 하루를 연다.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산길을 천천히 거닐며, 밤사이 맺힌 이슬을 머금은 들풀과 바람에 몸을 맡긴 나뭇잎의 흔들림을 바라본다. 산은 아무 말 없이도 많은 가르침을 전한다. 조급해하지 말 것, 억지로 다투지 말 것, 제자리에서 제빛을 다하라는 묵언의 법문이 골짜기를 타고 흐른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환희는 하루의 숨결을 더욱 맑게 한다. 산빛과 바람, 흙의 향기까지도 수행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다. 작은 솔방울 하나, 이름 모를 들꽃 하나하나까지도 자연은 이미 넉넉한 법문을 품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은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다시 도량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 도량에는 또 다른 온기가 감돈다. 구정 명절마다 신도님들과 대중을 모실 공양과 다과를 손수 준비하며 나는 도량에 깃들 따뜻함을 먼저 마음에 담는다.

한 가지 한 가지 음식을 정갈히 마련하는 시간은 분주함 속에서도 수행의 연장이 된다. 재료를 다듬고 불을 조절하며 간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곧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이 된다.

재료 다듬기·불 조절 등 마음 수행 돼
덜고 비우며 음식에 감사와 발원 담아
한 그릇에 담긴 신심과 정성, 도량 밝혀

공양간은 또 하나의 도량이 되고, 불길과 물소리마저 조용한 수행의 울림으로 이어진다.

이번 명절 사찰 공양 음식은 통연근을 오래 고아 낸 육수에 채수를 더해 깊이를 더한 떡국을 중심으로 차렸다. 맑고 단정한 국물 위 고명으로 김가루와 깨, 정갈히 튀겨 낸 연근을 얹어 향과 식감을 더했다. 산뜻한 표고버섯 레몬소스 강정과 마전 향이 은은한 금귤정과, 백설기, 대추차도 갖춰 올리며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을, 자극보다는 절제를 택했다.

통연근의 맑은 향은 속을 편안히 열어 주고, 금귤의 은은한 단맛은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덜어 내고 비워 내는 조리의 태도 또한 수행임을 새기며, 한 그릇 한 접시에 감사와 발원의 뜻을 정성스레 담았다.

마을에 사는 노부부 신도님이 명절을 앞두고 도토리묵을 손수 빚어 도량에 공양으로 올리셨다.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세월만큼 깊어진 신심과 사찰을 향한 변함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정갈히 담긴 묵 한 조각마다 두 분의 기도와 삶의 시간이 고요히 배어 있는 듯했다.

그 따뜻한 마음은 사찰에 깃든 정성 위에 포개져 명절의 의미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한다.

사찰의 정성과 명절의 온기는 이처럼 일상의 수행 속에서 이어진다. 한 송이 꽃, 한 그릇의 공양,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도량은 비로소 살아 숨 쉰다.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발원하며 새해의 첫 마음을 다진다.

그리고 나는 이 도량에서 이어져 온 정성의 결을 따라, 오늘도 조용히 두 손을 모은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따뜻한 숨결이 이 산자락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그 온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서원한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⑦ 창호지와 문살의 만남

올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잦았다. 방안의 물도 얼던 어렸을 적에 비하면 견딜 만한 추위다. 난방과 입성을 생각하면, 호들갑 떨어도 되나 싶기도 하다.

기분 전환 삼아 한여름 먹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예전 여름 밥상에는 상추가 자주 올랐는데 텃밭에서 자라는 속도에 입이 따라가기 바쁠 정도였다. 여름날 대청에서 상추쌈으로 점심을 먹을 때, 어른들은 상추의 물기를 창호지에 털고는 했다. '차르륵' 소리 다음에는 '상추쌈은 이래야 제맛'이라는 말이 따라갔다.

전통 건축에서 문살은 '창호지'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종이가 발명된 후에야 울거미에 살을 짜서 만든 방식의 문이 고안됐을 것이다. 그 이전에는 판자로 넓은 문을 만들고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는 벽체 위에 작은 구멍을 뚫고 세로로 굵은 살을 넣은 살창을 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창호지가 문을 판자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창호의 기본적 구조는 비슷하지만, 창호지를 붙이는 방식은 다르다. 한국과 중국은 문살의 안쪽 면에, 일본은 바깥면에 창호지를 붙인다. 그 이유까지 살피는 것은 이 글의 한계를 넘지만, 집이라는 공간을 대하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요컨대 창살의 안쪽에 창호지를 바르는 방식으로 하여 우리는 사찰의 아름다운 꽃살문을 볼 수 있게 됐다.



수덕사 대웅전. 손영자 작가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제8회 묘공학술장학생 지원

- **지원 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통합과정 포함)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 **지원 기간** : 1년
- **선발 인원** : ○명(스님은 별도 전형)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1일(일)~31일(화)

※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9회 묘공학술상 변경

묘공당 대행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묘공학술상 선정 방식이 변경되어 진행합니다.
2027년 6월에 시상하는 제9회 묘공학술상의 심사 대상은 『한마음연구』 제17집(2026년 8월 발행)과 『한마음연구』 제18집(2027년 2월 발행)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특히 2027년 묘공당 대행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2026년에 모집하는 『한마음연구』 특별 주제는 "대행스님과 한국사회"와 "대행스님과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 (특별 주제가 아니어도 묘공학술상의 심사 후보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상 금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자세한 사항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 **발간 시기** :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 분야**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 시기** : 연중 접수
-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 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 SEON STUDIES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yogong@daehaeng.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